

감성의 시대



박철용 베드로
벨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결과를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기업의 CEO들도 과거처럼 경영관련 자료나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아니, 그랬다가는 아무 일도 못할지 모를 세상이 되었다. 시를 읽고, 미술전람회나 음악회를 다닌다. 영화며 심지어 철학 강의에 새벽부터 빠져 들기도 한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룰프 옌센이 10여 년 전에 예상한 세계(드림 소사이어티)로, 정보화 세계 이후의 사회로 두벅 두벅 걸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머리(brain) 못지않게 가슴(heart)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벌써 여러 부문에서 이런 시그널이 드러나고 있다.

어느 지방의 중학교 선생님이 지각한 학생에게 집에 돌아가기 전에 시를 외우게 하는 벌을 줬다는 보도를 최근에 본 적이 있다. 먼저 그 어머니가 감격해서 소식을 인터넷에 띄웠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감동에 빠진 적이 있다. 그 선생님은 훗날을 보는 혜안이 있으신 것이다.

지난 해, 영국 웨일즈 출신의 36세 된 폴포츠라는 휴대전화 외판원이 영국 유수의 TV, 노래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내용이 UCC로 국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다. 대 성악가 파파로티의 아리아도 훌륭하지만 사연 많은 평범한 외판원이 부른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가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게 한 것이다. 그의 삶이 너무도 감동스럽고 노력하는 자의 꿈이 신데렐라처럼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이제는 우수한 팝페라 가수가 됨).

왜,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걸까?

과거의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의 물리적 노동력을 요구 했으나 이제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지식과 창조력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많은 동서양의 유능한 기업가들이 '기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그 인재관이 바뀌어 진 것이다.

인류문명은 상상력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효율이 중시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규범도 이에 준하는 수준을 유지해왔다. 특히 교육이 그러했다. 매뉴얼 준수, 약속이행, 성실 등 표준화에 초점이 맞춰져 개인의 창의력과 엉뚱한 발상 보다는 팀워크나 규정이행 등에 더 가치를 두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글로벌 경영의 트렌드는 열정과 가치를 이전의 효율이나 관리보다 더 우선해 한다. 오히려 리더가 없는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경영자들에게 요구하는 리더십도 통제보다는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이제껏 산업사회를 살아오면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가치관을 중시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바로 '감성시대', 인성을 강조하는 세대인 것이다.

앞으로 기업경영은 물론이려니와 사회생활, 인간관계, 심지어 자기관리 마저도 이 감성을 중시해야 하게 되었다. CEO들이 시를 읽고, 미술전람회를 다니고, 음악을 들으며 영감을 떠올리듯 개인들도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의 가장 중요한 삶터가 우리들의 가정이 아니겠는가. 가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감성적인 장소이다. 사랑의 꿈, 가족 간의 축복, 마음의 평안이 그곳에 있다. 개인의 인격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근본을 익히는 중요한 시공간이 되었다. 이른바 가화만사성인 셈이다. 더 발전하고 복잡해지면 근본이 중요시 되지 않는가. 가정이 그 본질이며 변치 않는 진리가 아니겠는가.

18세기 영국의 계관시인 워즈워드가 노래한 세상을 이제 모든 이들이 살아가야 할 것 같다.

My Heart Leaps Up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하늘의 무지개를 보노라면

A rainbow in the sky:
내 가슴은 뛰노라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내 어렸을 때 그러했고

So is it now I am a man;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하며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Or let me die!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만 못 하리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I could wish my days to be
나의 나날들이 매일같이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자연에 대한 경외로 이어진다면 좋으리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 감성의 시대는 보이지 않는 욕구를 행동으로 보이게 만들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가치로 만들어 가는 세상이다.

어린 왕자의 생텍쥐베리는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세상을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오감(五感)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통찰력, 상상력이라 할 것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2코린 4,18).